

CEO제형, 사상사를 좀 읽거나 그것이 오늘을 이해하는 첩경일세

글_ 박성래(외대 사학과 교수, 과학사)

미래가 어떤 세상일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하나의 화두가 되어 있기도 하다.

지구의 온난화는 기후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기후변화가 언젠가 갑작스럽게 지구 전체를 몇 주일 사이에 빙하시대로 바꿀지도 모른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외국영화가 제법 인기를 몰고 상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래의 황당한 이야기나 전망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의 세계가 어떻게 지금같은 모양이 되기에 이르렀던가를 반성하는 일이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한 인간의 미래가 지극히 불안하다는 사실을 외면하지는 말이 아니다. 미래가 극히 불투명한 채 불안한 것과 달리, 과거는 보다 분명한 역사여서 이런 책 저런 독서를 통해 터득하기 그리 어렵지 않으니 말이다.

이렇게 역사를 잘 이해하게 되면 미래를 보는 우리 눈도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세상을 만들어준 최근 서양의 역사, 특히 사상사(思想史) 또는 지성사(知性史)란 것을 좀 읽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역사를 이해함은 미래를 보는 것

예를들면 우리는 지금 온갖 '사상' 또는 '주의'(主義)의 홍수 속을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에서 포스트모던주의 등등 온갖 주의가 깃발을 올려두고 있다. 이런 사상이나 주의가 왜, 언제, 어디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대강 알아 두는 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정한 현대사회는 18세기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계몽사조(啓蒙思潮)의 눈부신 성장 속에서 유럽 사람들은 온갖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예견하게 되었다.

그전까지 인간은 종교적 속박 속에서 신음해 왔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인간 이성(理性)의 해방은 인간을 기독교의 질곡에서 해방시켰고, 인간은 이제 그들이 갖추고 있는 이성을 활용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며, 나가서는 바로 그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예측했다. 신의 계시가 만들어 줄 지복(至福)세상을 기다릴 것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위에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수많은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그 날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겠다고 분투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상사회를 실현하는 청사진을 만들고, 그 이상을 실현시키려 모여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이상사회는 그리 쉽게 이룩될 것 같지 않다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의문은 자본주의 구조가 심화되면서 그 부작용이 크고 많아질수록 더욱 어렵게만 보였다.

모든 -ism에 선(善)은 없다

거기서 등장하는 태도가 바로 공산주의였다. 여러 가지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계획이 좌절로 이어지자, 실망한 일부 지식층은 평화적 방법으로는 인류 해방을 기대할 수 없겠다고 결론지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파괴를 통해서만 새 사회는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의 종말이 새 사회를 가져올 것으로 그들은 예언했다.

그런가하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 기성의 모든 제도를 파괴해 버리고, 인간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19세기 동안 공산주의(Communism) 운동이 맹위를 떨치고, 한편으로는 무정부주의(Anarchism)가 일부 지식층을 사로잡기도 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온갖 '주의'(-ism)는 모두 과장된 강령이다. 자유주의라하여 인간의 자유만이 최고의 덕목이라 말하기 어렵고, 평등주의라하여 인간 사이의 평등을 최고의 가치라 단정할 수 있을까? 자유와 평등에는 나름의 제한 요소가 도사리기 마련이다. 온갖 과장된 주의 가운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오히려 덜 과장된 주장이라 할 수도 있다. 역사 속에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누가 감히 돈벌이가 최고라고 내놓고 말하겠는가? 속으로는 그리 생각하지언정... 자본주의란 가장 인간의 본능적 요소이기 때문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것을 선(善)이라 생각해 고집하려는 지식인은 없다. 그런가하면 민주주의란 역시 인간 본성에 가장 근접한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사실 우리말로는 '민주주의' 라지만, 영어로는 '주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지 않은가? 영어로는 민주주의란 democracy일 뿐이지, demo-ism 또는 그와 비슷한 무슨 -ism은 없다.

역사 속 '주장'은 오늘을 이해하는 첩경

이런 온갖 처방들은 갑자기 깨어나게 된 인간사회를 어떻게 끌고나 가야 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가운데 등장했던 생각이요, 주장들이었다. 그 각각에 장점이 있지만, 그 결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오늘의 세계와 한국을 이해하는 첩경이란 생각이다. 하지만 어찌 유럽 사상사 모두를 꿰뚫기가 쉽겠는가? 가장 간단하고 자극적인 방법 하나는 아마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써 낸 <공산당선언>(Communist Manifesto)을 읽는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듯하다. 길지도 않은 책이고, 국내에 서너 가지 번역판이 있는데, 번역에는 대개 자세한 설명도 붙어 있다.

나는 이 선언을 생각할 때마다 이 글을 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나이 30살과 28살을 떠올린다. 그 나이에 이만한 훌륭한 글을 써낸 것이 대견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젊었을 때의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예언은 지금도 유효한 계시를 우리들에게 던져준다. 그들의 예언을 신조 삼아 출발한 실제 정치는 실패로 끝난 듯하지만, 그들의 자본주의 비판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역사 속에서 이해하는 일은 오늘의 세상을 이해하는 첩경이란 말이다. 이를 시작으로 관심을 넓혀 간다면 얼마든지 많은 유럽 사상사책이 우리를 기다린다.

결국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노라면 자연스럽게 유럽사상사를 더 읽어야하겠다는 느낌을 갖게 되리라. 하지만 결국은 모든 책은 단편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공자(孔子)도 어디선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가? 《서경》을 말 그대로 믿을 바에는 차라리 《서경》을 읽지 않는 편이 좋다고... 모든 책에 해당하는 말이다.